

전남 서부권

무안군 간부공무원·경찰 등 공직자들 명의 도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물의'

벤츠 등 고급 차량 소유자들도 대거 입주



무안군청 간부공무원과 경찰 등 일부 공직자들이 최근 완공된 영구 임대아파트에 명의를 도용해 입주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일원 부지 2만798㎡에 일대 기간 30년인 국민 임대주택(493세대)을 완공해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곳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 연소득

2400만원 미만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아파트이다.

임대면적 역시 ▲52.89㎡(16평) 221세대 ▲69.42㎡(21평) 152세대 ▲76.03㎡(23평) 120세대 등 3가지 유형 7개 동으로 관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됐다. 아울러 복지관, 상가, 지하 주차장, 재활용 보관실 등 주민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됐다. 16평의 경우 보증금 800만원·월 임대료 6만 3000원 수준이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목포 신도심에 주차빌딩 4곳 건립

롯데 시네마·하당 놀부정 인근 860면 조성

예산 196억 소요… 市 민간자본 유치 등 추진

목포시가 신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4개소에 주차빌딩을 건립키로 해 주목된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미 조성돼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호남·남고 시영 등 원도심 지역 49개소(2560면) ▲신도심 지역 하당원형택지 등 18개소(815면)이다.

여기에 도심 자투리땅을 이용해 만든 소규모 동네 주차장 39개소 823면을 감안해도 총 4300여 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원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정주인구도 많은 신도심의 경우 공영 주차장이 원도심보다 오히려 더 적어 훨씬 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4600만원을 세워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심각한 신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빌딩을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키로 했다”면서 “주차빌딩이 조성되면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주민편의 도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리은행위 등아 시영주차장에 130면(1551㎡)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옆 원형1 시영주차장에 300면(2718㎡) ▲원형2 시영주차장에 300면(2715㎡) ▲하당 놀부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업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7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폐율	59.53%(법정 : 60%)
규모	지하 0층 지상 9층
건축면적	1,435.47㎡(434.23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차기	부설주차장 : 대지면적 201.3평, 연면적 1,233.4평, 지상 3층 철골조
에스컬레이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정부가격	상, 하 첨운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면적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총별 면적 개요

총별	면적	평	층 고	용 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정부가격(김정가)	14,000,000,000원
매매 예정 가격	12,000,000,000원
현 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 가능 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휴트니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등 최대층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 가능함

문의처 : 010-3625-6984

“6·25 참전용사 희생정신 잊지 않겠습니다”

해남군 만남의 광장에 기념비 제막

해남지역 6·25 참전용사들의 숙원이던 6·25 참전 기념탑이 해남군 해남읍 만남광장에 세워졌다.

해남군은 지난 7일 유족과 미망인 회원,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 기념탑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에 건립된 기념탑은 총공사비 9320만원을 들여 지난 6월에 착공해

지난달에 준공됐다.

참전기념탑의 이미지 컨셉은 ‘희생’을 의미한다. 화강석 재질의 주탑은 산화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소중형상으로 형상화했다. 또 참전용사 2명을 청동주물로 설치해 전우애를 나타냈다.

특히 기념탑에는 최근 참전용사 찾기 사업을 추진해 찾은 803명 등 모두 1503명의 지역 참전용사 이름이 새겨



졌다.

이월식 6·25 참전유공자회 해남군 지회장은 “참전용사 기념탑은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리며,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보훈의 빛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늦게나마 기념탑을 건립해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위국현신의 고귀한 가치를 드높이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신안·해남 등 마늘 주산단지 농민들

중국산 수입 억제·수급 안정 촉구

신안·해남 등 마늘 주산단지 농민들이 정부에 마늘산업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는 지난 7일 중도면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협의회를 갖고 중국산 마늘 수입 억제 등 마늘산업 종합 대책 마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의 부활 ▲마늘 전가 시설 지원 ▲종구생산 장려금 및 마늘생산 친환경 기자재 지원 ▲중국산 마늘수입 억제대책 추진 ▲원산지 집중단속 등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는



농협 전남본부 농촌 순회 무료 진료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함께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사업단과 함께 6일부터 8일까지 함평군 천지농협에서 농촌순회 무료진료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진료는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함평군 업다면·학교면 지역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정형외과·안과·가정의학과·영상의학과 등 국내 최고의 종합병원

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NH농협보험은 의료 소외계층의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엑스레이, 초음파, 심전도, 혈액분석기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춘 순회 진료차량을 기부하고 매년 사업에 필요한 금액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김용복 전남지역본부장은 “서울대병원과 협조해 앞으로 농촌지역 여성과 다문화가정 등 의료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혁기자 hwang@



한국자유총연 신안군지회

장천석 지회장 13일 취임

장천석(52) 한국자유총연맹 신안군지회장은 오는 13일 신안군 산립조합 3층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장 신임회장은 “자유·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창달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동안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으로 가장 아름답고 흥륭한

지회로 육성해 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 임자면 출신인 장 회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지도부로 방향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지회는 음식물쓰레기 기증을 위해 신규 영업자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자원봉사를 펼쳐오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기자 wncho@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 업소 늘었다

외식업종연회 전남지회

음식문화개선 운동 호응

예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덜 먹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 멎지 않는 반찬을 반려하는 고객에게는 음식가격의 5% 할인과 적립쿠폰 발행, 음료수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직원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회원들에게

원산지 표시제와 좋은 식단제 등 영업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도·계몽을 펼쳐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업소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정찬기 전남지회장은 “음식문화개선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와 업소 주인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무등빌딩임대



임대문의 062)222-0527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지역지역(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비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당 70만원
- ▶계획관리지역(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매가 22억
- ▶계획관리지역(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4,800평, 건축물을 있음, 매매가 13억원
- ▶준주거지역(방원, 시목, 임대용상기건물신축부지적합)
회정동, 광주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 11,520㎡(460평) 3.3㎡당 300만원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동